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성지아*, 염은이**, 도영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청운대학교**

Ji-A Seong(kkamsifo@dst.ac.kr)*, Eun-Yi Yeom(eyyeom@chungwoon.ac.kr)**,
Young-Suk Do(hardy02@dst.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D광역시 소재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사 이미지는 동아리 활동,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 중에는 '사회참여' 영역이 간호전문직관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이미지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간호전문직관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개념'이었다. 그러므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 마련, 동아리 활동 장려, 교수의 관심과 지도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대학생 | 간호사 | 이미지 | 전문직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 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us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s survey from 147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from March 11 to March 22, 201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age of nurses on the club activities,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mage of nurses has positively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ocial participation' domain of image of nurses ha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elf concept of profession' domain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ha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image of nurs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developing various teaching strategies, promoting club activities, paying attention to the student, and guiding them for raising degree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ollege life would be helpful to improve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 keyword : | College Students | Nurses | Image | Professionalism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격히 변화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소비자의 질적인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도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취업의 용이성과 직업의 안정성 등으로 인해 간호학 및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가 숙련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등의 전문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높다[1]. 그러나, 이러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사의 이미지는 여전히 자율성과 독자성이 부족한 역할을 수행하며, 힘들고 고된 직업이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2][3].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며 간호사로서 정체성 확립을 지지해주는 사회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4]. 또한,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호사의 긍지, 소명감, 업무수행 및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5]. 따라서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변화되고 대중매체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3], 최근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간호요구도가 변화하고 있고 전문직 간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간호사들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6]로 전인간호의 실천 핵심이며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결된다.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업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의 정도를 높이며[7-9],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의 정도는 낮아지게 하는 것[10][11]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이행하며[12], 확고하게 발달한 간호정체성을 가진 간호사가 역할변화에 직면했을 때 좀 더 유연성을 갖는다[13]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열의가 커지고, 그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자신의 적성보다는 취업의 보장이나 부모의 권유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 신규간호사가 임상에서 전문직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간호교육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 관련 선행연구는 간호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3],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비교[2], 간호사 이미지와 전문직 사회화와의 관계[1][14],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전문직 자아개념[15],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행동간의 관계[12]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간호대학생이 가지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 실무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 급격히 변화되는 간호계의 외부환경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짐으로써 간호사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을 조사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에게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육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

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D광역시 소재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16]에 의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0(medium), 검정력 .90으로 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 수는 109명으로 나타나, 응답률 80%를 고려하여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3.1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향련 등[17]이 개발하고 장숙현[18]이 수정·보완한 간호사 이미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질 9문항, 역할 9문항, 사회참여 7문항, 대인관계 6문항의 4개 영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장숙현 [18]

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해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19]가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의 5개 영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윤은자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보고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총 150부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문내용이 미흡한 3부를 제외한 1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됨이 사전에 설명되었고,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Window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전공 관련 특성, 간호사 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에 대해서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3)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09세(±8.29)이며 여성이 89.1%, 남성이 10.9%였다. 학년은 1학년 34.0%, 2학년 32.0%, 3학년 34.0%였으며 종교가 없는 학생이 52.4%였다.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80.3%,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가 66.0%를 차지하였다. 입학 시 전공 만족도는 '만족' 53.1%, '매우 만족' 28.6%, '약간 만족' 16.3%, '불만족' 2.0%의 순이었으며, 현재 전공 만족도 또한 '만족' 56.5%, '매우 만족' 21.1%, '약간 만족' 19.7%, '불만족'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57.2%로 가장 많았으며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곳은 종합병원이 76.2%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유리' 40.1%, '적성에 맞음' 25.9%, '가치있는 직업' 19.0%, '경제적 안정' 12.2%, '가족의 희망' 2.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의 정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의 정도는 평균평점 3.85±0.40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질(3.99±.45)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사회참여(3.98±.46), 대인 관계(3.83±.51), 역할(3.56±.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개별문항을 분석한 결과, '자질' 영역에서는 '간호사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4.19±.62)'의 문항이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간호사는 전문가이다(4.30±.6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간호사는 타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4.02±.64)'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사는 불친절하다(3.68±.79)'의 문항(역환산)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역할' 영역에서는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역할을 한다(2.89±.99)'의 문항(역환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전공 관련 특성

		(N=147)
변수	내용	Mean±SD or n(%)
연령(세)	≤ 20	22.09±8.29
	20 <	85(57.8) 62(42.2)
성별	남성	16(10.9)
	여성	131(89.1)
학년	1학년	50(34.0)
	2학년	47(32.0)
	3학년	50(34.0)
종교	유무	70(47.6) 77(52.4)
	동아리활동	유무
임상실습경험	유무	50(34.0) 97(66.0)
	입학 시 전공만족도	불만족
약간만족		24(16.3)
만족		78(53.1)
매우만족		42(28.6)
현재 전공만족도	불만족	4(2.7)
	약간만족	29(19.7)
	만족	83(56.5)
	매우만족	31(21.1)
대학생활 만족도	불만족	11(7.5)
	약간만족	44(29.9)
	만족	84(57.2)
	매우만족	8(5.4)
졸업 후 희망진로	종합병원	112(76.2)
	공무원	16(10.9)
	보건간호사	6(4.1)
	국외병원	13(8.8)
간호학과 지원동기	취업이 유리	59(40.1)
	적성에 맞음	38(25.9)
	가치있는 직업	28(19.0)
	경제적 안정	18(12.2)
	가족의 희망	4(2.7)

3.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평점 3.83±.42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간호실무 역할(4.00±.53)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간호의 전문성(3.99±.48), 전문직 자아개념(3.97±.49), 사회적 인식(3.65±.55), 간호의 독자성(3.39±.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개별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 영역에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4.10±.63)'의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인식' 영역에서는 '간호사는 의사를 비롯한 타전문인들과 동료의식을 갖고 일함

표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의 정도

(N=147)

영역	문항	Mean±SD	Mean±SD	Mean±SD
자질	간호사는 헌신적이다.	3.84±.65		
	간호사는 신뢰감을 준다.	4.09±.54		
	간호사는 정직하다.	3.84±.64		
	간호사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도와준다.	4.14±.70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 로 불릴만하다.	3.93±.75	3.99±.45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지지해준다.	3.95±.62		
	간호사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	4.19±.62		
	간호사는 성실하다.	3.94±.69		
역할	간호사는 깨끗하고 단정하다.	4.00±.68		
	간호사는 교육자이다.	3.79±.71		
	간호사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3.65±.80		
	간호사는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4.00±.66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간호를 수행한다.	3.30±.99	3.56±.47	
	간호사는 상담자이다.	3.80±.76		
사회참여	간호사는 지도력이 있다.	3.51±.65		3.85±.40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역할을 한다. (역)	2.89±.99		
	간호사는 병원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3.62±.81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3.78±.83		
	간호사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4.08±.63		
	간호사는 전문가이다.	4.30±.62	3.98±.46	
대인관계	간호사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4.05±.63		
	간호사라는 직업은 매력적이다.	3.95±.79		
	간호사는 지적 수준이 높다.	4.05±.66		
	간호사는 불친절하다. (역)	3.68±.79		
	간호사는 협조적이며 대인관계가 좋다.	3.79±.63		
	간호사는 권위의식을 남용한다. (역)	3.93±.89	3.83±.51	
	간호사는 타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	4.02±.64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숙한 인격자이다.	3.86±.72		
	간호사는 편안하여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다.	3.72±.77		

으로써 전문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3.97±.65)'의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간호의 전문성 영역에서는 '간호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동양 철학적인 인(仁)의 개념, 즉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4.03±.66)'의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간호실무 역할' 영역에서는 '간호는 한국적인 고유한 간호이론을 개발하면 의료개방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다(4.12±.60)'의 문항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의 독자성' 영역에서는 '간호는 조직 내에서 각 직종 간에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3.63±1.01)'의 문항(역환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3].

4.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간호사 이미지는 동아리 활동(t=2.39, p=.018), 입학

시 전공만족도(F=2.89, p=.038), 현재 전공만족도(F=3.03, p=.031), 대학생활 만족도(F=2.93, p=.036)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입학 시 전공만족도(F=3.04, p=.031)와 현재 전공만족도(F=3.56, p=.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간호사 이미지가 좋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입학 시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가 '만족'인 경우에 비해 간호사 이미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가 '약간 만족'인 경우에 비해, 대학생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가 '불만족'이나 '약간 만족'인 경우에 비해 간호사 이미지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학 시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에 비해, 현재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과 '만족'인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의 인식 수준이 높았다[표 4].

표 3.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N=147)

영역	문항	Mean±SD	Mean±SD	Mean±SD
전문직 자아 개념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지식, 기술, 시간 등을 아낌없이 바친다.	3.89±.67		
	간호사는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3.99±.61		
	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여 진다.	3.84±.68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숙된 인격자로 보인다.	3.86±.66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	4.10±.63	3.97±.49	
	간호사는 대부분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3.87±.73		
	간호사는 복장과 외모를 볼 때 전문직업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4.07±.63		
	간호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므로 전문직업인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4.10±.62		
사회적 인식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소명의식과 윤리정신이 투철한 모습을 보여준다.	3.99±.66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3.50±.83		
	간호사는 의사를 비롯한 타전문인들과 동료의식을 갖고 일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97±.65		
	간호사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36±.91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타 직종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인으로서 존중받고 있다.	3.78±.66	3.65±.55	
	간호는 고귀한 전문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3.71±.75		
	간호직은 사회적 인식이 좋은 전문 직업이다.	3.84±.70		
	간호직은 전문직업적 파위를 발휘해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59±.79		3.83 ±.42
간호의 전문성	간호는 전문적인 직관력으로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는 고유한 서비스이다.	3.91±.58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보여준다.	4.03±.58		
	간호는 고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한다.	3.95±.73	3.99±.48	
	간호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동양 철학적인 인(仁)의 개념, 즉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4.03±.66		
	간호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4.00±.73		
간호 실무 역할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표현력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3.82±.75		
	간호사는 타 직종과의 관계에서 전문인다운 업무처리의 능숙성과 인격적 성숙성을 보인다.	3.99±.60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전문인다운 자질을 보여준다.	4.07±.57	4.00±.53	
	간호는 한국적인 고유한 간호이론을 개발하면 의료개방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의료 서비스 분야가 될 것이다.	4.12±.60		
간호의 독자성	간호사는 병원내의 타 직종의 전문인만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역)	3.45±1.13		
	간호는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역)	3.10±1.02	3.39±.87	
	간호는 조직 내에서 각 직종 간에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역)	3.63±1.01		

5.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순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753, p<.001$). 간호사 이미지의 하부영역과 간호전문직관의 하부영역간의 관계는 역할 영역

과 간호의 독자성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간호사 이미지 중에서 사회참여 영역이 간호전문직관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703, p<.001$). 또한, 간호사 이미지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개념'이었다($r=.740, p<.001$)[표 5].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N=147)

변수	내용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연령(세)	≤ 20	3.87±0.36	0.52	3.84±0.40	0.37
	20 <	3.83±0.46	(.602)	3.81±0.45	(.711)
성별	남성	3.78±0.45	-0.76	3.69±0.39	-1.47
	여성	3.86±0.40	(.449)	3.85±0.42	(.144)
학년	1학년a	3.81±0.45	0.73 (.482)	3.75±0.44	2.48 (.088)
	2학년b	3.90±0.40		3.93±0.41	
	3학년c	3.85±0.35		3.81±0.39	
종교	유	3.86±0.41	0.29	3.87±0.40	1.27
	무	3.84±0.39	(.772)	3.79±0.43	(.206)
동아리활동	유	4.01±0.35	2.39	3.69±0.35	1.97
	무	3.81±0.40	(.018)	3.80±0.43	(.051)
임상실습 경험	유	3.85±0.35	-0.08	3.81±0.39	-0.34
	무	3.85±0.43	(.936)	3.84±0.43	(.737)
입학 시 전공만족도	불만족a	3.56±0.40	2.89 (.038)	3.30±0.40	3.04 (.031)
	약간만족b	3.82±0.28		3.78±0.34	
	만족c	3.80±0.38		3.80±0.42	
	매우만족d	3.99±0.46		3.94±0.43	
현재 전공만족도	불만족a	3.62±0.35	3.03 (.031)	3.34±0.42	3.56 (.016)
	약간만족b	3.71±0.29		3.69±0.33	
	만족c	3.86±0.42		3.85±0.43	
	매우만족d	3.99±0.40		3.96±0.40	
대학생활 만족도	불만족a	3.71±0.29	2.93 (.036)	3.71±0.53	1.59 (.194)
	약간만족b	3.79±0.35		3.76±0.38	
	만족c	3.87±0.43		3.86±0.42	
	매우만족d	4.19±0.31		4.06±0.39	
졸업 후 희망진로	종합병원a	3.86±0.41	0.36 (.783)	3.87±0.42	1.70 (.169)
	공무원b	3.77±0.36		3.65±0.27	
	보건간호사 c	3.93±0.40		3.87±0.59	
	외국병원d	3.81±0.41		3.70±0.44	
간호학과 지원동기	취업이 유리a	3.81±0.36	0.79 (.533)	3.81±0.43	0.94 (.441)
	적성에 맞춤b	3.90±0.43		3.79±0.41	
	가치 있는 직업c	3.92±0.42		3.96±0.42	
	경제적 안정d	3.83±0.45		3.78±0.38	
	가족의 희망e	3.66±0.40		3.71±0.41	

표 5.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 (N=147)

변수	간호전문직관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역할	간호의 독자성
간호사 이미지	.753 (.001)	.740 (.001)	.506 (.001)	.656 (.001)	.694 (.001)	.218 (.008)
자질	.663 (.001)	.692 (.001)	.413 (.001)	.579 (.001)	.583 (.001)	.200 (.015)
역할	.513 (.001)	.504 (.001)	.343 (.001)	.469 (.001)	.528 (.001)	.086 (.299)
사회참여	.703 (.001)	.692 (.001)	.523 (.001)	.582 (.001)	.644 (.001)	.251 (.002)
대인관계	.687 (.001)	.687 (.001)	.452 (.001)	.608 (.001)	.616 (.001)	.203 (.013)

IV. 논의

간호전문직의 발전은 간호직 종사자의 바람직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최근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가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간호학 및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총점의 평균은 3.85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한 가미정 등[20]의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대생의 3.80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은희[21]의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대생의 3.54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자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참여, 대인관계, 역할 순으로 선행 연구결과[18, 20, 21]와 유사하게 나타나, 최근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이미지를 세부방향별로 살펴보면, ‘간호사는 전문가이다’, ‘간호사는 가치 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정과 하나선[1]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은 간호사가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가지며 직업에 대한 긍지를 소유하는 등의 전문적 이미지를 높게 인식한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김윤정[22]의 연구에서 간호이미지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진 전문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와 ‘간호사는 지도력이 있다’는 역할 영역의 문항이 가장 낮으며, ‘간호사는 병원정책결정에 참여한다’,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회참여 영역의 문항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할 영역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역할을 한다’에서(역환산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간호사가 의사의 보조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

생은 간호의 전문성을 주로 간호술기 측면에 국한되어 인식하며 간호사는 의사의 일을 도와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지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주미경과 신계영[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상담자와 교육자의 역할 및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가장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와 일맥상통한다. 간호대학생이 전문적 간호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전문직의 필수요건이 되는 독자성과 자율성,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수동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간호사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간호학 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수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지지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현재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간호사 이미지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정과 하나선[1]의 연구와 이순희 등[4]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간호사 이미지를 더 높게 지각한 결과와 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 시에 간호대학생들의 전공과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을 선별하여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인 코칭과 전문적인 지지를 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대상자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간호사 이미지의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은 타과 학생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나 학교 내 동기들과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특별활동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한다는 선행 연구결과[24]와 연관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부분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학교차원의 환경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들이 선호하는 동아리

및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실적이면서 효과성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83점으로 1,2,3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영미와 윤은자[25]의 3.6점, 2학년과 4년을 대상으로 한 Bang 등[26]의 3.43점,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함연숙, 김화순, 조인숙과 임지영[27]의 3.4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하부영역 중 간호실무역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간호의 전문성,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 25]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현경 등[10]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의 독자성' 영역이 가장 높은 반면, '간호실무역할'과 '전문직 자아개념' 영역은 낮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학생이 졸업 전에 간호사의 역할을 높게 기대하고 간호직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이후 임상실무경험과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토대를 다져줌과 동시에 이를 더욱 공고히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임상실무를 통해 전문직관이 더 성숙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후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별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부족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을 세부분항별로 살펴보면, '간호는 한국적인 고유한 간호이론을 개발하면 의료개방 이후에도 경쟁력 있는 유망한 의료 서비스가 될 것이다.',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계속적인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간호전문성 신장에 대한 높은 기대와 고도의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책임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간호의 독자성' 영역의 모든 문항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간호의 전문화를 위해 수십년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

구하고 천사, 의사의 보조자와 같은 진부한 대중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28]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고정관념과 부정적 편견은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삶과 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국 간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29]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에게 간호사의 다양한 전문적인 역할과 분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의료체계 내에서 간호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호계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입학 시 전공만족도와 현재 전공만족도가 낮은 경우 간호전문직관의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만족도를 간호전문직관의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보고한 함연숙 등[27], 권영미와 윤은자[2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육과정, 교수관계, 학교 등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내용이 교과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연숙 등[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이정애[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간호사 이미지 하위영역은 '사회참여'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과학적 지식, 숙련된 기술, 사회적 인정 등에 긍정적인 인식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특히, 권영미와 윤은자[25]이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인식만족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결과와 본 연구에서 '병원정책 결정에 참여한다'와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항목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온 결과를 연관 지어 파악해 볼 때, '사회참여' 영역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 전략이 매우 절실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개념'이었다. 이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돕는 인성 및 태도 측면의 교육 제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취업률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업의 보장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확고한 간호철학과 소명의식을 정립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수의 상담과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가 요구되며 효과적인 교육중재를 마련하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D광역시 대학교 간호대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19.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평균 3.85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입학 시 전공만족도, 현재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 높았으며, 간호전문직관도 입학 시 만족도와 현재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경우 높았

다. 그리고, 간호사 이미지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 마련, 동아리 활동 장려, 교수의 관심과 지도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요인을 평가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교육중재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전략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최정, 하나선,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전문직사회화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5권, 제1호, pp.54-63, 2009.
- [2] 박진희, 일반, 편입 및 RN-BSN과정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 2012.
- [3] 정혜선, 유양숙, "일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이미지 결정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pp.29-38, 2010.
- [4]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제10권, 제2호, pp.219-231, 2004.
- [5] 지성애, 문희자, 한성숙, 김문실, 권성복, 간호관리학 I, 수문사, 2000.
- [6] D. Weis and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2, No.2, pp.201-204, 2000.
- [7] 문영숙, 한수정,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관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

- 회지, 제17권, 제1호, pp.72-79, 2011.
- [8] K. Hallin and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1, No.1, pp.62-70, 2008.
- [9] J. I. Hwang, F. Lou, S. S. Han, F. Cao, W. O. Kim, and P. Li, "Professionalism: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nurs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56, No.3, pp.313-318, 2009.
- [10] 윤현경, 최지혜, 이은영, 이해영, 박미정, "간호사의 의사결정역량,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이 이직충동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제19권, 제5호, pp.658-667, 2013.
- [11]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73-79, 2008.
- [12] 고영지, 김인경,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 준비행동 간의 관계", *제17권, 제1호*, pp.62-71, 2011.
- [13] T. H. Cook, M. J. Gilmer, and C. J. Bess, "Beginning students' definitions of nursing: An inductive framework of professional identit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2, No.7, pp.311-317, 2003.
- [14] 오덕자, 최철자, 권보은, 박연환,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가 전문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64-72, 2005.
- [15] 이정애,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간호행정학회지*, 제10권, 제3호, pp.325-334, 2004.
- [16]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2007.
- [17] 이향련, 최경옥, 고정은, 홍미령, 김숙영, 신혜숙,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제15권, pp.45-65, 1992.
- [18] 장숙현,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1998.
- [19]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35권, 제6호, pp.1091-1100, 2005.
- [20] 가미정, 김수미, 김영경, 남수진, 오루미, 육지수, 이해인, 최미나, 최혜민, 허다운, "간호사의 이미지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이화간호학회지*, 제44호, pp.1-15, 2010.
- [21] 서은희,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 이미지", *간호행정학회지*, 제15권, 제4호, pp.610-616, 2009.
- [22] 김윤정,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전문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224-234, 2014.
- [23] 주미경, 신계영, "3년제 간호학 전공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각한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pp.510-521, 2012.
- [24] 최지혜, 박미정,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적응: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339-349, 2013.
- [25] 권영미, 윤은자,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3권, 제3호, pp.285-292, 2007.
- [26] K. S. Bang, J. H. Kang, M. H. Jun, H. S. Kim, H. M. Son, S. J. Yu, M. K. Kwon, and J. S. Kim, "Professional values in Korea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31, No.1, pp.72-75, 2011.
- [27] 함연숙, 김화순, 조인숙, 임지영, "졸업학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536-544, 2011.
- [28] M. Takase, E. Kershaw, and L. Burt, "Does public image of nurses matter?,"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18, No.4, pp.196-205,
2002.

- [29] A. M. Barker, "An emerging leadership paradigm: Transformational leadership," Nursing & Health Care, Vol.12, No.4, pp.204-207, 1991.

저 자 소 개

성 지 아(Ji-a Seong)

정회원



- 2005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박사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조기폐경, 시뮬레이션 교육

염 은 이(Eun-Yi Yeom)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만성질환, 시뮬레이션 교육

도 영 속(Young-suk Do)

정회원



- 2002년 8월 :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박사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암환자 간호